

# 농업 · 농촌 살릴 비전 있어야

**희** 망찬 戊子年 새해  
가 밝았습니다.

독자 및 농업인과 농업  
관련기관에 종사하시  
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농업은 그동안 개방  
과 구조조정에 의해 어찌면 막연한 희생을 강요  
당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농업 · 농촌을 쉽게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  
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살리기와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농업 · 농촌 살리기부터입니  
다. 농업 · 농촌은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  
주는 전도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  
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고 일구어 내  
는 것은 곧 농업의 창조와 번영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농업문제는 따뜻한 애정이 전제되지 않  
는 화려한 수사나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타당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식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겐 농업

의 전도와 안위는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듯 하며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축복일지 재앙일  
지 모르는 DDA나 FTA 등의 시대조류를 형성  
하고, 그저 시련의 형상만이 가시화하고 있어  
새해에도 농업인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임  
을 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전하기도  
전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  
다.

이제 농업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도 한층 진보되어야 합니다. 계속 오불관언(吾  
不關焉)인양 그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위기는  
비단 농업 · 농촌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후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와 있  
습니다.

FAO가 식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경  
고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절반이 주식  
으로 삼고 있다는 쌀의 국제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반면 재고량은 3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강하지 못한 나라  
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먹거리는 계층간 험난한 불화를 초래할 수 있  
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 저명인사  
들은 각각 과거 녹색혁명에 버금가는 농업혁명

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성을 내고 있습니다. 먹거리 부족에 기인하는 고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은 존재만으로도 성장동력인 셈이며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식량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많은 현학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및 농업인 여러분!

첨단 정밀화학제품인 작물보호제의 출현과 진화는 우수 문명의 이기(利器)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의 혜택과 미래를 제공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문명 이기도 혜택과 장밋빛 미래만을 부여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올바른 사용과 소비자의 따뜻한 배려가 조화를 이룰 때 이기의 혜택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우리 협회는 올해도 여론 주도층인 방송작가 및 각종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안전성을 적극 알려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과학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친환경유기농업의 빛과 그림자를 집중 조명해 봄으로써 과장보도로 인한 과대인식을 바로 잡고 작물보호제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각종 교양강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농산물 구입시 막연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도심지 주부들을 대상으

로 한 안전성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인식전환 및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물보호제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거 없이 농약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도심지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올바른 사용법 계도를 위한 전국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등록업무의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농약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 증진 및 정보수집 제공 등 제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농약혼용정보 및 농약사용지침서 책자를 더욱 확대, 보급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은 물론 사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원사 여러분은 물론 유관기관 및 언론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물로 인식되며 다산 근면하고 재물과 부를 상징하는 쥐띠 해를 맞아 여러 분야가 하나 되며 더욱 풍요롭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염 병 만

